

2018년 (제2회) 서울목회자인문학아카데미
-기독교고전읽기 두번째-

“어거스틴의 고백록”

일 시 : 2018년 6월 14일(목) 오전8시-12시
장 소 : 은진교회(김유준 목사)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26길 8)

- ◆ 주최 : 서울목회자인문학아카데미, 크리스찬아카데미
- ◆ 주관 : 크리스찬아카데미

서울 종로구 율곡로 190 여전도회관 702호
Tel. 02)747-6189~0 Fax 02)747-6181

크리스찬아카데미 목회자인문학아카데미 기독교고전읽기2(2018년 6월)
-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선한용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1. '희한한 꼴불견'을 넘어 진솔한 고백의 기도

이청준이 1976년에 쓴 '자서전들 쓰십시다'라는 글에 자서전 대필로 생계를 이어가는 윤지옥이라는 주인공이 나온다. 자신의 직업에 회의를 느낀 그는 자신에게 자서전 대필을 맡긴 한 코미디언에게 편지를 쓴다.

“...선생님 자신의 과거에 대해 그것을 있는 대로 솔직히 시인하실 정직성이 없으시다면, 있는 대로 그것을 증거하고 참회하실 용기가 없으시다면, 그것이 아무리 추하고 부끄럽더라도 선생님 자신의 것으로 그것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실 자기 애정이 없으시다면, 그 정직성과 용기와 애정이 생길 때까지 그것을 단념하고 계시는 것이 옳으리라...”(62)

이청준은 '글팔이'의 입을 빌어 잘못된 욕심에서 남발되는 자서전 문화를 지적한다. 2년 후 그는 '자서전에 대하여'라는 '작가 노트'에서 “자신의 과거를 정직하게 고백해 보일 리 없고, 자신의 실패를 성실하게 참회해 보일 리도 없는, 자서전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오히려 자기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그의 책의 금박처럼 화려하게 번쩍거리는 말로써 길이길이 도배질해 덮어버리고 싶은” 마음에서 일고 있는 자서전 문화를 “희한한 꼴불견”이라고 부른다(99-100).

“희한한 꼴불견”, 오늘 우리의 주인공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까? 그의 자전적 『고백록』이 부끄러운 과거를 진솔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는 이청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상처와 실패를 그럴싸한 언어와 논리로 도배질하지 않는 점에서도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고 세례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397년에 집필을 시작하여 3년 뒤인 400년에 세상에 내놓은 『고백록』은 참회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운동주의 '참회록'과는 성격이 다르다. “만 이십 사년 일 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 왔던가”라든지,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告白)을 했던가”라는 자조적(自嘲的) 성격의 참회록이 아니다. 자신의 방황과 방탕함을 대화의 상대자인 하나님께 기도의 형식으로 참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드리는 기도서라 할 수 있다. 죽기 몇 년 전, 자신이 쓴 저술들에 대한 『개정판』(Retractationes)에서 『고백록』에 대한 서문이라 할 수 있는 첫 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 고백록 13권은 나의 악하고 선한 행위들과 관련하여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Confessionum mearum libri tredecim, et de malis et de bonis meis Deum laudant iustum et bonum)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참회의 『고백록』을 잿빛으로만 채색하지 않는다. 혹 이것은 이미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난 뒤에 나온 장밋빛 회고의 성격 탓은 아닐까? 실제로 그는 신을 찾아 나선 자신의 영혼이 “종기투성이가 되고 굵아 터(질)”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는가?(95) 물론 참된 '마음의 양식'을 찾아 나선 그의 삶은 이리 굵히고, 저리 굵힌 흔적들로 가득하였다. 그러나 이런 생채기들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록』, 첫 문장은 시편 145편 3절을 인용하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한다.

“오 주님, 당신은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을 받으실 만합니다. 당신의 능력은 심히 크시고 당신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당신의 피조물의 한 부분인 인간이 당신을 찬양하기 원합니다.”(45)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인간의 참회의 ‘고백’(confessio)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laudatio)과 맞닿아 있다. 어쩌면 이런 배경 하에서 ‘유쾌한 회개’라는 루터의 말이 나온 것을 아닐까?

2. 진리에 대한 사랑인가, 파우스트(Faust)적 방랑인가?

『고백록』에 나타난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은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으로 간주되곤 한다. 그에게 있어서 진리는 하나님에 대한 다른 이름이었다(345). 그래서 그는 기도의 대상자인 하나님 대신에 진리에 대해 호소할 수 있었다.

“오, 진리, 진리여. 그들(마니주의자들)이 나에게 계속하여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은 책과 말로 당신의 이름을 약간 속삭여 주었을 때 내 영혼의 골수는 얼마나 당신을 (내적으로) 열망했었습니까?”(103)

하나님의 다른 이름으로서의 진리는 사랑과 같은 선상에서 사용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도 기도한다.

“오, 영원한 진리여! 참된 사랑이여! 사랑스러운 영원이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니 당신을 향해 내가 밤낮으로 한숨을 짓습니다.”(228)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 그것은 『고백록』을 관통하는 그의 갈망이었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나로 하여금 당신을 알게 하소서. 당신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로 하여금 당신을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는(313) 그가 가는 곳마다 흔적을 남긴 영적인 몸부림이었다. 그에게 있어 유년기에서 청년기로 나이가 들고, 고향 타가스테(Thagaste)를 떠나 카르타고와 로마와 밀라노 등으로 이동을 하였던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여정이다. 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회심이후에야 무소부 재하신 분으로 알게 되었다.

“내가 당신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당신을 찾아보아야 합니까?...내가 당신을 어디에서 찾아 만나 당신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까?...당신이 계시는 장소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갔다, 뒤로 물러갔다 하지만 그것은 장소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이신 당신은 어디에서든지 계시어 당신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며, 모든 사람들의 여러 가지 요구를 동시에 들어주십니다.”(347)

이렇게 어디에나 계시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그는 어디에서 만날 수 있었을까? 왜 오랫동안 파우스트적인 방랑을 해야 했을까?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그렇게도 오래 되셨지만, 그렇게도 새로운 ‘아름다움’이 되시는 당신을 나는 너무 늦게 사랑했습니다. 보시옵소서, 당신은 내 안에 계셨건만 나는 나 밖에 나와서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나 자신은 (참 아름다움이 되시는 당신을 떠나)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의 아름다움 속으로 굴러 빠져 들어가 흉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계셨건만 나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습시다. 그 피조물들의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나를 당신에게서 멀리 떠나게 했습니다.”(347)

자신의 밖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찾았기에 찾지 못했다는 고백은 실은 논리적인 모순이다. 진리이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고 그 스스로 고백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내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도 계신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고자 한 것은 밖으로만 향하는 시선을 안으로도 끌어들이려 함이었을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 자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 향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바깥세상에 시선을 빼앗긴다. 무언가 웅장한 것, 아름다운 것, 영광스러운 것, 거룩한 것, 신비한 것 등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곤 한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만났다고 하는 하나님은 실은 인간의 상상의

산물이요, 우상이 된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도 왜곡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어쩌면 더 심한지도 모른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여정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요소가 되었던 것도 실은 내면에서 일고 있는 욕망이 아니었을까? 특히, 성적인 욕망은 그를 끈질기게 괴롭히며 그를 “구부러진 길”로 끌고 갔다. 그리하여 그의 “영혼이 등으로, 옆으로, 배로 엎치락뒤치락하며 이리저리 누워 보아도 모두 불편하여 괴롭기만 한” 또 다른 의미의 파우스트적인 “쳐참한 방랑”의 길이었다(205). 이 힘든 방랑에 지친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쉼, 안식을 찾는다. “오로지 당신 안에서만 내 영혼이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3. 영혼의 안식

하나님을 찾아가는 영적 여정의 이야기인 『고백록』을 관통하는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것이다. 파우스트적인 방랑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백록』의 시작이 바로 이 안식에 대한 갈망과 요청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45)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는 존재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자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찾지 못하면 불안해한다. 이 영혼의 불안과 참된 쉼에 대한 갈망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되풀이하여 기도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안식은 누가 주는 것인가?

“누가 나를 이끌어 당신 안에서 쉬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당신을 내 마음에 오시게 하여 내 마음을 취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내 죄악을 잊게 함으로 나의 유일한 선이 되시는 당신을 포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49)

하나님 안에서 찾는 안식을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을 잊게 하는 것이다. 사함을 받고 마음이 정결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안식이 임한다는 뜻이리라.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마음이 밖으로 표출되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은 꼬이고 얽혀 있다. 이것이 안식에 이르는 길을 방해한다.

“누가 이 얽히고 헝클어진 매듭을 풀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더러워서 내 자신이 생각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청결한 눈에 나타나시는 의로우시고, 순결하시며, 아름다우시고 매혹적인 당신을 뵈고 싶습니다. 질릴 줄 모르는 만족감을 가지고 당신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당신에게 완전한 평안과 요동치 않는 생명이 있습니다...오, 나의 하나님. 그러나 나는 당신으로부터 떨어져서 길을 잃었습니다...당신을 멀리 떠나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스스로 궁핍한 땅이 되었습니다.”(91)

오직 하나님 안에만 완전한 안식이 있지만 얽히고 헝클어진 삶의 매듭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헤매는 “궁핍한 땅”,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다. 그런데 이런 실존은 회심을 체험하고 난 뒤에도 계속 따라다니는 모습이다.

“네가 이렇게 당신께 여쭙어 보며 살피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는 내 영혼이 안주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오직 당신 안에만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흠어진 내 자신을 당신 안에서 하나 되게 거두어 모아 주시고, 나의 어떤 부분도 당신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370-71)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계속 되풀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옛 습관에 다시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원한 안식은 창조의 사역이 다 마친 뒤 주어지는 선물이다.

“당신이 심히 좋은 그 피조물들을 다 만드신 다음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물론 당신은 이 모든 것을 계속 안식하시면서 동시에 창조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책의 말씀이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도 당신이 하라 하신 선한 일을 다 마친 후 영생의 안식일에 당신 안에서 편히 쉬기 원합니다.”(510)

창조의 마지막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안식은 인간의 안식을 통해 나타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안식은 곧 하나님의 안식이다.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안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독특한 찬송을 우리는 함께 부를 수 있다.

“그 영원한 안식일에는 당신이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듯 우리 안에서 안식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선한 일이 실은 당신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오니 그때의 우리의 안식도 실은 당신이 우리를 통해서 누리신 안식일 것입니다.”(510)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삶을 통해 이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많은 지식, 육체적인 쾌락, 다른 종교적인 열심은 더 더욱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나 회심을 통해 그 맛을 볼 수 있다. 그 맛 자체도 달콤하기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늦은 회심을 비유하여 “당신을 나는 너무 늦게 사랑했다”고 고백한다. 하나님과 ‘늦은 사랑’을 나누게 된 그의 회심은 어떠했는가?

4. 회심

4.1 내 안의 두 목소리

아우구스티누스는 지쳐 있었다. 진리를 찾아 헤맨 파우스트적인 방랑에 종지부를 찍고 싶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하는 부름과 뒤에서 그를 붙잡는 “습관화된 악” 사이의 싸움은 치열했다. 번번이 그는 실패하였고, 그의 영혼은 심한 중병을 앓게 되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의 양식인 당신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었지만 배고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썩지 않는 음식을 갈망하지 않고서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내 영혼은 건전하지 못했으니 종기투성이가 되고 굶아 터져서 그 가려움을 없이하려고 나는 감각적인 것으로 긁고 있었습니다.”(95)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젊은 시절, 자신의 영혼이 병들어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마음의 양식”이신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외적인 것들로 자신의 내면의 허기를 채우려고 했다. 그의 내면의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양식, 그의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고 고통을 없애줄 수 있는 의사는 오직 하나님뿐이지만 그는 여전히 “감각적인 것으로 긁고” 있을 뿐이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삶 안에 “슬퍼해야 할 내 생의 즐거움”과 “즐거워해야 할 내 생의 슬픔”이 서로 싸우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 자신의 “나쁜 과거에 대한 슬픔”과 자신의 “선한 즐거움”이 서로 싸우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병든 상처가 더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리라.

“보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눈을 피해 내 상처를 숨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의 의사이시요, 나는 병든 환자입니다. 당신은 자비로우시고 나는 지금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계속 시련이 아니고 무엇입니까?”(348)

시련이 연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아우구스티누스는 안식에 가까이 다가갈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럴 때면 여지없이 “오랫동안 애착심을 가지고 대해 왔던 헛되고 헛되며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들이

아직도 (그를) 꼭 붙들곤” 하였다(270). 이 뒤에서의 붙듦은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었다. 강한 협박이 아니라, 부드럽게 속삭이는 목소리였으며, “슬쩍 뒤돌아보도록 옷깃을 살짝 잡아당기는 것 같은” 매력적인 소리였다.

“당신이 우리를 정말 버리고 떠나가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단 말입니까? 이제부터는 당신이 이런 일 저런 일을 영원히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270)

“더럽고 부끄러운 것을 암시”하는 “이런 일 저런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순결한 절제”의 모습을 띤 여인이 나타났다. 이 절제의 여인을 통해 그는 ‘하나님께 너 자신을 맡기라’는 소리를 듣는다(271).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두 목소리 사이에서 그는 갈등한다. 뒤의 소리를 버리고 앞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자 그의 마음에 “눈물의 홍수를 동반한 큰 폭풍”이 일어났다. 그는 눈물이라는 “합당한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 무화과나무 밑에 쓰러진다.

4.2 무화과나무 밑에서의 절규와 신비한 노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눈물의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음성이 들린다. 옛 사람의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절규라 할 수 있는 소리가 그의 귀를 울린다.

“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당신께서 영원히 노하시려 하십니까? 나의 이전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소서...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내일입니까? 내일입니까? 왜 지금은 아닙니까? 왜 이 순간에 나의 불결함이 끝나지 않습니까?”(272)

절박함이 느껴지는 절규이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문제로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라고 부르짖는 사도 바울의 절규가 들리는 것 같다. 마음의 통회가 무화과나무를 울리고, 울타리를 넘어 이웃집까지 공명이 일어나게 하였다. 이웃집에서 어린이의 소리로 들리는 공명의 소리는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을 펴서 “첫 눈에 들어온 것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성경을 펼치자 그의 눈에 들어온 성경구절은 로마서 13:13-14절 말씀이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충분했다. 긴 파우스트의 여정을 거쳐 이제 막 진리의 문에 막 다다른 아우구스티누스는 “더 읽을 필요가 없었다.” 곧바로 “확실성의 빛”이 그의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냈기” 때문이다(273). 이렇게 하여 우리의 파우스트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는다.

4.3 참목자상: 파우스트스(Faustus)와 암브로시우스(Ambrosius)

아우구스티누스가 마니교에서 돌이켜 기독교로 개종하는 데 영향을 미친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마니교의 감독으로 파우스트스이고, 다른 사람은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이다.

파우스트스가 카르타고에 오던 해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에 입교한 지 9년이나 되었지만 진리를 찾지도, 마음의 안정을 누리지도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파우스트스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그를 특별히 기다린 이유는 마니교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의 궁금증이나 의문사항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를 이야기하곤 했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학문에 조예가 깊었고 특히 학

예에 능한 학자”로 불렸다(151).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가 제시하는 지식의 내용에 더 관심을 가졌다. 대신 그 지식이 담긴 말의 형식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그를 곧 실망시켰다.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마니교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단지 말을 더 잘하고 재미있게 할뿐이었기 때문이다. 처음엔 파우스투스가 “말하는 태도, 표정, 그리고 자기의 사상을 유창하고 적당한 말로 옷 입혀서 표현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157-58)

그러나 그와 직접 토론을 한 뒤로는 아우구스티누스는 파우스투스가 교육을 잘 받지 못해 무식하다고 간주하기 시작한다. 문법 공부를 조금 한 것 이외에, 읽은 책이라고는 키케로의 연설, 세네카의 책 몇 권, 시집, 그리고 마니교에 대한 교리서적 몇 권이 전부였다. 많은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타고난 좋은 천성과 재간을 사용하여 날마다 강연을 하다 보니 그 숙달된 경험을 통하여 대중을 휘어잡는, 유창한 말솜씨를 연마할 수가 있었다. 파우스투스에 대한 실망을 그는 이렇게 표현한다.

“하지만, 멋지게 차려입은 사환이 값비싼 빈 술잔만을 나에게 준들 어찌 내 갈증이 해소될 수 있겠습니까? 내 귀는 이미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말들이 더 잘 표현되었다고 해서 더 나은 것이 아니요, 웅변적이라고 해서 진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말하는 사람이 얼굴이 매력적이고, 그 언어가 유창하다고 해서 그의 영혼이 지혜로운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해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요, 말을 잘못 한다고 허위를 말함도 아니며, 또한 큰 소리로 강력하게 말한다고 해서 진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요, 말하는 것이 매끈하다고 하여 반드시 거짓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157)

파우스투스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 마니교를 연구하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열심은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마니교를 완전히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 떠남은 카르타고를 떠나 로마를 거쳐 밀라노로 가는 것으로 상징되어 나타난다. 밀라노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감독으로 있던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간다. 인품과 인격에 놀란 그는 그의 설교가 소문에 들던 대로 웅변술이 유창한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설교를 들었다. 그의 설교의 형식이 파우스투스의 강연처럼 재미있고 사람을 홀리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훨씬 교양이 있고 매력이 있었다.(171)

그래서일까? ‘무엇’이냐는 내용보다는, ‘어떻게’라는 형식에 대해 배우려고 노력하였는데, “무관심했던 내용(뜻)이 말의 형식과 함께 내 마음에 들어왔다.” 이 설교를 통해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신앙은 진리이며 합리적으로 옹호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파우스투스와 암브로시우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나는 파우스투스에 속하는 자인가, 아니면 암브로시우스에게 속하는 자인가? 나는 파우스투스적인 설교를 더 선호하는가, 아니면 암브로시우스적인 설교를 더 좋아하는가? 말은 화려하지만 내용이 없는 설교에 더 관심을 가지는가, 아니면 내용이 들어있는 설교에 더 관심을 가지는가? 인품과 설교의 기법과 내용을 다 갖춘 목회자는 또 다른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교회로의 길을 열어준다.

5. 기억의 신비

5.1 기억의 메타포

2005년 7월 1일자 ‘사이언스’는 125회 특집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특집을 실었다. 여기서 과학이 풀지 못하는 난제 25가지를 선정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기억은 어떻게 저장되고 인출되는가?’(How Are Memories Stored and Retrieved?)하는 것이었다. ‘인간을 창조하는 것 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과학 신앙의 범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기억 활동에 대해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 없다니! 그래서일까? 지금까지 기억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메타포, 즉 비유를 통해 이루어졌다.

서양 문화에서 기억에 대한 메타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밀랍(蜜蠟)판 이미지’이고, 다른 하나는 ‘광 이미지’이다. 전자는 인간의 기억을 문자로 기록하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후자는 기억을 어딘가에 저장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밀랍판 메타포의 가장 오래된 흔적은 플라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화록 『테아에테트』에서 그는 소크라테스의 입을 통해 기억의 확실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의 영혼[마음]에 흔적을 남기는 밀랍으로 된 판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어떤 사람의 것은 좀 크고 어떤 사람의 것은 좀 작으며, 어떤 사람의 것은 좀 깨끗한 밀랍으로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의 것은 좀 더러운 밀랍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의 것은 좀 단단하고 어떤 사람의 것은 좀 말랑말랑하며, 어떤 사람의 것은 적합한 것일 수 있다. 이것은 뮤즈의 어머니인 르네모시네의 선물이다. 우리는 보았거나 들었거나 또는 스스로 생각해낸 것 중에 기억하고 싶은 것을, 반지에 새겨진 명각(銘刻)을 가지고 인장(印章)을 찍듯이, 이 밀납판에 새긴다... 새겨진 것을 우리는, 각인(刻印)된 것이 존재하는 한, 기억하고 안다. 이 각인된 것이 지워지거나, 전혀 새겨질 수 없을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알지 못한다.”

밀랍판에 무언가를 새기며 기록하듯이, 기억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각인하는 것이다. ‘깊은 인상(印象)을 받다’라는 표현도 여기에서 유래한다. ‘명심(銘心)하다’도 마찬가지다. 이 밀랍판 메타포에 속하는 것으로 프로이트의 ‘요술글쓰기판’(Wunderblock)이 있다. 물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책이다.

‘광 이미지’는 보관 장소나 용기 같은 저장 공간과 관련된 메타포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잘 나타난다. 그는 “기억이라는 평야와 넓은 궁전”, “기억이라는 창고”(323), “기억이라는 넓은 방”, “크고 끝이 없는 내면의 방”(325), 한 마디로 “기억의 창고”(324)라는 말을 사용하며, 기억이란 “감각을 통하여 지각된 여러 가지 사물의 영상들이 간직되어 있는 곳”으로 표현한다(323). 감각을 통하여 기억의 창고로 들어온 것은 종류에 따라 따로따로 간직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 끄집어 낼 수 있는 것이다.

“기억 속에는 모든 것이 그 종류에 따라 제각기 따로따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감각의) 관문을 통하여 기억이라는 창고로 들어온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빛과 색깔과 물체의 형태는 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리는 귀를 통해서, 모든 냄새는 코를 통해서, 모든 맛은 입을 통해서, 그리고 단단하든지 무르든지, 차든지 덥든지, 거칠든지 매끄럽든지, 무겁든지 가볍든지 한 것은 몸 밖에서든지 안에서든지 막론하고 온몸에 퍼져 있는 촉각을 통하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은밀하고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무수한 구석을 가지고 있는 기억의 창고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 간직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마다 다시 불러 찾아 내놓는 것입니다.”(324)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기억의 메타포로 등장하는 창고 이미지는 문서보관실이나 도서관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풍경’을 이루는 요소인 골짜기, 언덕, 동굴, 별판 등도 기억의 공간적인 비유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기억의 공간적인 메타포는 시간적인 차원도 갖는다. 아우구스티누스

는 기억 속에서 “나 자신을 만나고 나 자신을 기억한다”고 말하며 이렇게 고백한다.

“또한 나는 거기에서 내가 어디서, 언제, 무엇을 했으며 그것을 할 때 어떻게 느꼈다는 것도 기억합니다. 거기에는 내가 경험했는지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서 기억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같은 기억의 창고에서 내가 과거에 경험했거나 그 경험을 토대로 하여 믿게 된 것의 영상들을 꺼내어 새로운 영상들을 구성해 보고, 그것들이 과거의 맥락에 맞는가 견주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나는 미래의 행동과 사건과 희망을 추측해 봅니다. 또한 나는 이 모든 것을 현재적인 사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325)

기억을 끄집어내는 것, 즉 기억에 대한 회상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만나고 교차하는 장소요, 시간이다. 그렇다면 이 기억이란 어떤 것인가?

5.2 기억이란 무엇인가?

아우구스티누스가 기억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었다. 이 갈망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긴 여정의 단계를 지난다. 그 첫 번째는 감각을 통하여 마음에 들어와 간직되는 영상들이다. 이때 사물 자체는 외부에 그대로 있고, 다만 그것의 영상만 기억의 창고에 들어가 간직된다.

이 기억보다 더 고차원적인 기억이 있는데, 이것은 학문에서 배우고 익힌 지식에 대한 기억이다. 이것은 사물의 영상뿐만 아니라, 본질까지도 저장하는 기억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이 학문적인 지식은 배움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선験적으로 마음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배움이란 기억 속에 있는 것을 “상기”(想起)하는 것으로 표현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리하여 우리가 결론 내리기는 감각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존재들)들, 즉 아무 영상 없이도 물 자체(본질)를 우리 안에서 알게 된다는 것은 기억 속에 이미 있었으나 흩어지고 혼돈된 상태로 있는 것들을 사고의 과정을 통하여 거두어 모으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두어 모은 것을 우리는 주의를 쏟아 질서 있게 정리하여 기억 안의 가까운 곳에 간직하여 두게 됩니다. 그러면 전에는 숨겨져 있고, 버려져 있고, 흩어져 있었던 것들이 마음에 낮이 익어 쉽게 떠오르게 됩니다.”(328-29).

기억의 밑실에 선験적으로 존재하는 수학적 수(數)와 선(線)의 원리와 법칙들까지도 포함한다(329-30).

세 번째 종류의 기억은 기쁨이나 슬픔, 욕망, 두려움과 같은 마음의 감정 상태까지도 저장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서 기억과 마음은 서로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마음이 이러한 감정들을 체험할 때, 기억이 반드시 같은 감정을 기억하는 것은 아니다. 마음은 기뻐하고 있는데, 기억은 과거의 몹시 슬펐을 때를 기억할 수 있다. 그런데 마음은 자기 안에 있는 기쁨 때문에 즐거워해도, 기억은 자기 안에 있는 슬픔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어떻게 마음은 기뻐하는데, 기억은 슬펐던 일을 슬퍼하지 않고 동시에 그냥 기억만 할 수 있단 말인가? 이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기억이란 말하자면 마음의 위장과 같고, 기쁘고 슬픈 경험은 달고 쓴 음식과 같다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기쁘고 슬픈 경험이 기억 안으로 한번 들어가면 위장에 들어가 있는 음식처럼 그 곳에 간직되어 있어도 그 맛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331-32)

감정이 기억 속에서는 하나의 관념으로만 간직된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현존하지 않는 것, 즉 망각에 대한 기억도 있다. 마음은 자기 자신을 기억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망각까지도 기억한다. ‘기억의 결핍’ 혹은 ‘기억의 부재’ 현상으로 간주되는 망각을 기억한다는 것은 망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망각의 영상을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다.

5.3 기억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기억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길을 찾던 그는 기억의 단계도 초월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렇게 고백한다.

“나의 참 생명이 되신 나의 하나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기억이라고 일컫는 이 힘을 초월하고자 합니다. 나는 이 기억을 초월하여 사랑스러운 빛이 되신 당신에게 다 다르고자 합니다...이제 나는 내 마음을 통하여 내 위에 계신 당신을 향해 올라갑니다. 즉 나는 기억이라고 일컫는 이 힘을 초월하여 당신과 접할 수 있는 곳에서 당신을 접하고, 당신을 붙들 수 있는 곳에서 당신을 붙들려고 합니다.”(336)

기억력을 초월해야 하는 이유는 동물들이나 새들도 기억력을 가지고 있기에, 기억력만으로는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생각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선험적인 하나님 기억이 있어야 한다.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선험적인 기억의 존재에 대해 언급한 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한다.

“오, 주님. 나는 당신을 찾고자 할 때 내 기억 밖에서 찾지 않고 내 기억의 넓은 광장 안에서 두루 살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알게 된 때부터 내 기억에 새겨진 당신의 모습 이외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당신을 알게 된 이후 당신을 잊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진리를 찾은 그 곳에서 진리 자체가 되신 나의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는 진리를 처음으로 알게 된 때부터 진리를 잊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을 알게 된 이후 계속 당신은 내 기억 안에 임재하여 계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곳에서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 안에서 기뻐할 때, 당신을 찾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거룩한 기쁨입니다.”(345-46)

하나님을 기억 안에서 만난다니? 기억의 광장 어느 곳에 하나님은 계시는가? 기억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는 어디인가? 아우구스티누스는 “기억 속에 간직되어 있는 물체들의 영상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 “마음의 감정을 간직해 놓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다. 자기 자신을 기억하는 장소인 마음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이러한 실패를 통해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은 “어떤 물체의 영상도 아니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감정도” 아니요, 인간의 “마음 자체도” 아님을 통찰한다(346). 하나님을 알게 되기 전에는 하나님은 그의 기억 안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다(347).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된 때부터” 그분은 그의 “기억 안에 거하기로 택했다.”(346) 이렇게 하여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기억 안으로, 다시 말해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에 너무도 늦게 이르렀다고 생각하기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당신은 내 안에 계셨건만 나는 나 밖에서 나와서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한다(347). 하나님 없이 아주 오랫동안 지냈고,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에 대해 안타까워한다.

“그렇게도 오래 되셨지만, 그렇게도 새로운 ‘아름다움’이 되시는 당신을 나는 너무 늦게 사랑했습니다. 보시옵소서. 당신은 내 안에 계셨건만 나는 나 밖에 나와서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347).

6. 시간 속에서 시간과 함께 사는 인간

고백록 11권에 나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론은 당시의 시간개념을 정립하여 후대에 물려준 소중한 유산이다. 현대의 사상가들이 시간문제를 다룰 때 아우구스티누스를 가볍게 지날 수 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에드문트 후설(E. Husserl)은 그의 『내적 시간의식의 현상학에 대한 강의』(Halle a. d. S.: Max Niemeyer Verlag, 1928) 서문 첫 부분에서 이렇게 말한다(368).

“시간의식을 분석하는 것은 심리학과 인식론의 가장 오래된 십자가이다. 여기에 놓여 있는 큰 어려움을 꿰뚫어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첫 번째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였다. 그의 『고백록』 11권 13-28장은 시간문제를 다루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직도 철저하게 연구해야 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지식을 자랑하는 근세 시대에 어느 누구도 이 위대하고 진지하게 씌름하는 아우구스티누스보다 더 깊고 넓게 이 문제를 다룬 자는 없었다. 오늘날도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은 인용되어도 좋을 것이다. ‘만일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는다면,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묻는 자에게 내가 설명하려고 하면, 나는 모릅니다.’”(si nemo a me quaerat, scio, si quaerenti explicare velim, nescio)

시간에 관한 사상사에서 피해갈 수 없는 아우구스티누스. 그에게 시간이란 무엇일까?

6.1 시간은 무엇인가? - 묻는 이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시간개념은 크로노스(chronos)적인 역학적인 시간 개념으로 하루는 24시간이고 일분은 60초로 이루어져있다. 이 개념에 의하면 시간의 운동은 영원하다. 시간은 시작이 없다는 것이다. 즉,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시간개념에 반대한다. 동시에 마니교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이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 질문에는 창조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하나님의 본체에 속한다는 신학적인 전제가 들어 있다. 바로 이러한 전제를 배경으로 하며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하나님의 본체 안에서 과거에 없었던 어떤 것이 생겨났다면, 그 본체는 진정한 의미에서 영원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천지를 창조하시겠다는 계획이 영원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의지였다면, 그 피조물도 역시 영원한 것이 아니겠는가?”(390)

논리전개에 대한 도전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세계는 무로부터 창조되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를 비난하던 일렬의 무리들이 ‘만약 무로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나?’ 라고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세계는 시간 안에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창조했다고 답변한다.

즉 시간은 세상과 동시에 창조되었으므로 창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하는 질문은 우문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며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원자이므로 만물을 무로부터 창조했다. 무로부터 창조된 시간의 절대 시작, 즉 태초부터 시작한 시간은 영원토록 무한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시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무도 묻는 이가 없으면 아는 듯 하다가도, 막상 묻는 이에게 설명을 하러 들자면 말문이 막히고 맙니다.”(394)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시간은 완전히 모름과 완전히 아는 것 사이에서 생긴다. 무언가 알 것 같기도 한데,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것이 시간입니다. 그래도 그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만일 아무것도 흘러 지나가지 않으면 과거의 시간이란 없을 것이요, 만일 아무것도 흘러오지 않으면 미래의 시간이 없을 것이며, 만일 아무것도 현존하지 않는다면, 현재라는 시간이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지금 존재하지 않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지금 존재하지 않는데, 이 두 가지 시간, 즉 과거와 미래가 어떻게 하여 있게 되는 것입니까? 반면에 현재라는 시간이 항상 현재로 남아 있어 과거의 시간으로 흘러 지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시간이 아니고 영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현재가 -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 반드시 과거로 지나가는 것으로만 존재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현재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시간의 존재 이유가 지나가 없어져 버리는 데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이란 비존재(non esse)로 흘러 지나가는 것으로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394)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과거와 미래는 현재의 관점에서만 파악된다. 과거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존재하고, 미래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분명한 것은

“과거와 미래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것들은 과거나 미래의 형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미래가 미래로 남아 있다면, 그것은 ‘아직 없는 것’이 되고, 과거가 과거로만 남아 있다면, 그것은 ‘이미 없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와 미래가 어디에 있든지 또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은 현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398-99)

현재로서의 과거와 현재로서의 미래는 어떤 시간인가? 두 시간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현재는 어떤 시간인가? 분명 있기는 있는데 실제로는 없는, 이 기괴하기 짝이 없는 시간은 도대체 무엇일까? 아우구스티누스의 공헌은 인간 심리의 내면에서 체험된, 주관화된 시간 이해를 제시했다는 점에 있다.

6.2 주관적 시간 이해

아직 오지 않아서 없는 미래, 이미 흘러갔기에 없는 과거, 바로 앞에 있지만 어떤 틈새도 없이 너무도 신속하게 과거로 빨려 들어가는 현재, 분명히 있으면서도 실상은 없는 이 세 시제는 도대체 무엇이며 또한 어떻게 썰 수 있단 말인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의 객관적 실재성을 결코 부인하지 않으나 인간의 마음 안에서 주체적으로 체험되지 않고서는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시간은 언제나 현재라는 시점 하에서만 바로 인식될 수 있다. 미래나 과거는 다 비존재요 무성(無性)에 빠져 있다면 오직 존재와 유성(有性)은 현재에만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나에게 명확히 드러나 밝혀진 것은 미래의 시간이나 과거의 시간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의 시간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적당치 않습니다. 아마 ‘과거 일의 현재’, ‘현재 일의 현재’, ‘미래 일의 현재’라는 세 가지의 시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시간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영혼(마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 밖의 다른 곳에서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즉 과거 일의 현재는 기억이요, 현재 일의 현재는 직관이며, 미래 일의 현재는 기대입니다.”(401).

시간이 인간의 의식 안에서 과거는 ‘기억으로서의 현재’로, 현재는 ‘직관으로서의 현재’로, 미래는 ‘기대로서의 현재’로서 각각 체험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시간의 측정도 인간의 내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시간은 아직 있지도 않은 미래로부터 아무 연장이 없는 현재를 지나 이미 사라져 버린 과거로 흘러 들어간다. 있지도 않는, 미래, 현재, 과거를 어떻게 썰 수 있을까? “오, 내 마음(영혼)아, 나는 네 안에서 내 시간을 재노라.”(411). 미래가 아직 오지 않아 없기에 미래라는 시간을 측정할 수 없지만 미래에 대한 현재 우리 의식의 기대는 측정할 수 있다. 매달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이 “오늘 예배 시간은 평소보다 좀 더 길 것이다” 하고 측정하는 것은 현재의 마음에서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 기대한 것을 측정하는 것이다. 과거 역시 이미 흘러지나갔기에 과거 그 자체의 시간을 썰 수는 없지만 과거가 우리의 마음에 남겨 놓은 인상만큼은 측정할 수 있다. 한 남자가 군대 생활이 무척 길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 때의 사건이 현재 자신의 기억에 남겨놓은 잔영이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도 틈새가 없기에 측량할 수 없지만 우리 목전에 있는 현실을 순간적으로 직관함으로써 썰 수 있다.

“우리 마음은 ‘기대’하고, ‘직관’하고 ‘기억’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기대하는 것은 직관하는 것을 통하여 기억하는 것으로 흘러 지나간다. 미래가 아직 있지 않음을 누가 부인하겠는가?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한 기대가 이미 존재해 있다.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가 현재에 있지 않음을 누가 부인하겠는가?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과거(의

일)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존재해 있다. 현재라는 시간은 순간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아무 연장(길이)도 없음을 누가 부인하겠는가? 그러나 마음의 직관(주의 작용)은 지속이 되고 그것을 통해 ‘있을 것’(미래)은 ‘없어질 것’(과거)으로 이행하여 지나간다. 그러므로 현재(아직) 있지 않은 미래의 시간이 긴 것이 아니다. 미래가 길다 함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긴 것 뿐이다. 또한 이미 있지 않은 과거도 길수는 없다. 과거가 길다 함은 과거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 긴 것뿐이다.”(412-13)

6.3 영혼의 분산에서 통합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시를 낭독하는 예를 들어 마음의 분산에 대해 이야기한다(413). 시를 읽기 전에는 시 전체에 대한 기대가 있다. 그러나 읽으면 읽을수록 읽은 부분은 기대의 영역에서 떨어져 나와 과거라는 기억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이로 인해 마음은 기억과 기대, 즉 이미 읽은 부분과 읽으려고 하는 부분으로 분산된다. 이런 와중에도 직관은 현재로 지속이 되어 나가는데, 이로 인해 미래의 것은 과거로 지나간다. 이것은 기대의 부분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기억으로 옮겨갈 때까지 지속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생명이 시간 속에서 헛갈리어 없어져 가고 있다”고 해석한다. 즉, 개인의 종말이요, 인류 역사의 종말로 이해한다.

바로 이러한 마음의 헛갈림에서 벗어나 마음이 모아지고 통합되어 가는 삶을 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바 된 것을 붙잡기 위해 그를 향해 쫓아가기를 갈망한다. 이런 마음을 그는 이렇게 표현한다.

“나는 이제 지나간 과거를 잊어버리고, 지나가 없어지게 될 미래의 것에 마음을 향하지 않으며,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 - 분산된 마음으로는 아니라 마음을 집중하여, 즉 마음의 헛갈림으로가 아니라 마음의 지향으로써 - 하늘의 부르는 상을 얻기 위해 쫓아갑니다.”(414)

여기서 ‘앞에 있는 것’이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시사하는 메타포를 의미하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말을 듣지 않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아우구스티누스도 하게 된다. “그러나 나는 알 수 없는 질서인 이 시간 속에서 산산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되기 전까지는 “여러 무상한 일들(파도)로 인하여 갈기갈기 찢기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415).

하나님과의 연합을 갈망하며 ‘시간’을 노래하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시간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며(389), 시간에 대한 갈무리를 ‘하나님의 지식과 인간의 지식’로 하고 있다는(416-17) 사실은 시간의 창조자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간접적으로 하는 것 같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시간의 현재, 즉 오늘을 나는 어떤 고백을 하며 살 것인가?

한구석을 밝히는 ‘나’에 대한 몸살이

강치원 교수(교양학부)

“며칠 전에 조준구와 마주보고 앉았던 자리에 서희는 그림자 같이 앉아 있다. 허울만 남았구나. 서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린다. 나비가 날아가버린 번데기, 나비가 날아가버린 빈 번데기, 긴 겨울을 견디었던 승리의 찬란한 나비는 어디로 날아갔는가?...내가 없도다.”¹⁾

박경리씨의 대하소설 토지의 주인공 서희의 독백이다. 최참판 댁 재산을 빼앗은 조준구에게 복수하기 위한 일념으로 혹독하게 자신을 치며 살아온 서희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집과 땅을 다시금 찾았지만 이 여정 속에 자신이 없었음을 깨닫고 허탈감에 빠진다. 삶의 목표만 있었지 그 목표를 향해 가는 ‘나’가 없었다는 것이다.

마지막 정점에서 자신이 없음을 고백하는 서희에 비해 서희의 종이였으나 남편이 된 길상의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온다. “살인자인 아버지와 매국노인 형에 대한 보상”을 위해 평사리에서 간도의 용정으로 독립자금을 가지고 왔다고 말하는 한복이를 향해 길상이는 소리를 지른다.

“너의 가난과 너에 대한 핍박을 너의 아버지 너의 형 탓으로 돌리는 것은 네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 네가 없다는 것은 죽은 거다...너는 너 자신을 살아야 하는 계야.”²⁾

박경리씨는 자신의 두 주인공의 입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현대인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내가 설정한 삶의 목적을 이루었지만 그 이루어진 정상에서 ‘나’의 상실을 괴로워하는 서희의 절규와 부모나 형제나 친구의 업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나’로 살아야 함을 역설하는 길상의 외침은 자기를 잃어버린 현대의 미아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다.

그렇다. 오늘날의 문제는 자기를 잃어버린 미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이 미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은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cogito, ergo sum)”라는 데카르트의 주장 이후, 확실한 것으로 간주되던 ‘생각하는 나’가 이제 더 이상 확실한 공리가 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소식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세계의 곳곳에서는 ‘나’를 찾는 몸짓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요즈음 영성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되는 명상이나 참선이나 요가 등등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것은 바로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은 보여준다. 더 이상 계몽주의적 환상에 사로잡혀 자신을 잃어버린 미아로 살지 않고 자신을 찾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일 것이다.

‘나’를 찾는 운동은 한구석밝히기 운동도 피할 수 없는 숙제이다. 아니 숙명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어떠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결실을 거두는 삶을 살자는 한구석밝히기 운동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무엇인지, 최고의 결실이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최고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지 등등의 질문에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정립하고 실천적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만 사로잡혀 한구석을 밝혀나갈 주체로서의 ‘나’를 진지하게 조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거대담론으로 남아 세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잃어버린 미아들이 많은 요즈음 시대에 한구석밝히기 운동의 효과적인 전개를 위해 한구석을 밝혀나갈 주체로서의 ‘나’에 대한 학문적이며 실천적인 고민이 요청된다.

다행스럽게도 한구석밝히기 운동의 주창자인 김영실은 그의 책 『한구석밝히기』에서 한구석을 밝혀나갈 주체인 ‘나’에 관심을 갖게 하는 몇 가지 단초들을 제공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서

1) 박경리, 『토지 제 3부 1권』 (서울: 나남출판, 2002), 220-221쪽.

2) 박경리, 위의 책, 377쪽.

전적 회고의 형식을 빌어 한구석밝히기 운동이 무엇이며, 어떻게 형성되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구석을 밝히는 주체로 살아야 할 '나'에 대해 깊이 있는 관심을 기울이지는 못했다. 대신에 그는 한구석을 밝힌 자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다.³⁾ 세종대왕, 이순신, 김유신, 에디슨, 아인슈타인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소개되는가 하면 안용복, 김철륜, 이름 모르는 일본의 점원 등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도 들어 있다.

한구석밝히기 운동이 먼저 개인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한구석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구석을 밝힌 개개의 사람들에게 많은 주의를 기울인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의 전기적인 삶을 살펴보면 한구석을 밝힌 면면을 드러내는 것은 한구석밝히기 연구가 계속해서 심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세상에 족적을 남긴 소위 유명한 사람들만의 전기 연구가 아니라, 김영실이 한 것처럼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여 한구석을 밝힌 사람들의 전기도 발굴해내고 드러내는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은 1970년대에 등장한 미시사적 역사연구 및 서술의 방법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⁴⁾

그런데 김영실이 자신의 책에서 제시하는 사람들의 삶은 '그들'의 삶이다. 그것은 '나'의 삶이 아니다.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에 나오는 주인공 뫼르소처럼 자아의식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많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은 의미 없이 다가올 수 있다. 또한 과거 위인들의 영웅적인 서사시는 거대담론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이야기로만 남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구석밝히기 운동을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의 운동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한구석을 밝히는 나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술하는 실천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한구석을 밝히는 주체로서의 자기성찰과 자기발견을 위한 자서전적 관찰과 자서전 쓰기는 한구석밝히기 운동을 나의 일상생활(Alltag)이나 삶의 세계(Lebenswelt)에 보다 구체적인 뿌리를 내리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김영실의 자전적 에세이인 『민들레 흙씨는 오늘도 날고 싶다』⁵⁾를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산문 형식으로 쓰여진 그의 회고적인 이야기는 한구석밝히기 운동이 어떻게 태동하고 발전하였는지를 개인사적 측면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그의 자서전이 한구석밝히기 운동과 연관해 가지는 보다 중요한 가치는 그의 삶 자체가 한구석을 밝히는 삶의 과정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그의 자서전은 추태화 교수가 지적하듯 “한구석밝히기 운동을 실천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였으며 한구석을 밝혀나갈 주체의 자서전 쓰기에 대한 한 가지 모델을 제시하였다.⁶⁾

본 글은 한구석밝히기 운동의 실천방법으로서 자서전 쓰기를 제안하는 추태화 교수의 제안에 응답하여 한구석을 밝히는 주체인 '나'에 대한 몸살이를 쓰고자 한다. 그러나 자기성찰과 자기발견을 위해 어떻게 자서전을 써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이 본 글의 화두로 등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본 글은 단지 나의 삶을 이야기할 것이다. 학술적인 논문집에 나의 이야기를 기고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것이다. 객관성을 요구하는 학문의 전통을 만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서전은 전기와 마찬가지로 문학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객관성을 요구하는 학적인 독자들의 양해를 바랄 뿐이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몇 마디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필립 르죈은 그의 책 『자서전의 규약』에서 자서전을 “한 실제 인물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소재로 하여 개인적인 삶, 특히 자신의 인성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한, 산문으로 쓰인 과거 회상형의 이야기”라고 정의한다.⁷⁾ 자서전이 “산문으로 쓰인 과거 회상형의 이야기”라는 것은 자서전이 문학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20세기 중반까지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역사서술의 학문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관점과 문학적 차원을 인정하는 관점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

3) 김영실, 『한구석밝히기』(안양: 안양대학교출판부, 2003), 223-317쪽.

4) 미시사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미시사란 무엇인가. 역사학의 새로운 가능성 - 미시사의 이론·방법·논쟁』, 박차섭 엮음(서울: 도서출판 푸른역사, 2000). 이 저작은 이하에서 『미시사란 무엇인가』로 줄여 사용한다.

5) 김영실, 『민들레 흙씨는 오늘도 날고 싶다』(서울: 도서출판 한솜, 2004).

6) 추태화, “한구석밝히기 운동 실천방법으로서 자서전 쓰기”, 『한구석밝히기 論文集 제 8권(2004)』, 111-142쪽.

7) 필립 르죈, 『자서전의 규약』. 윤진 역(서울: 문학과학사, 1998), 17쪽.

나 1970년대 미시사의 등장으로 역사서술에 있어서 문학적인 측면이 간과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게 되었다.

미시사는 딱딱하고 분석적인 문체가 아니라 이야기체로 개인의 일상사를 서술한다. 그런데 이야기체 역사는 필연적으로 문학적인 형태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까를로 진즈부르크의 『치즈와 구더기』⁸⁾, 내털리 제이먼 데이비스의 『마르탱 게르의 귀향』⁹⁾, 조반니 레비의 『무형의 유산』, 삐에트로 레돈디의 『이단자 갈릴레오』 등에서 발견한다. 이야기체 형식으로 쓰여진 위의 저작들이 역사라기보다는 소설에 더 가깝다는 비판들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체의 미시사적 역사서술은 새로운 역사서술의 방법으로 자리를 잡았고, 이를 통해 역사서술의 문학적인 차원이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문화인류학자인 클리포드 기어츠가 1973년에 말한 “이야기체의 부활”¹⁰⁾과 로렌스 스톤이 1979년에 말한 “이야기체 역사의 부활”¹¹⁾이 미시사의 등장과 때를 같이 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하겠다.

미시사의 역사서술 방법의 도움으로 나의 삶을 이야기식으로 전개하는 본 글은 나의 전 삶에 대해 기술하지는 않는다. 단지 내가 기독교에 귀의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싸워 온 신에 대한 물음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것을 미시사 방법론의 선구자로 간주되는 진즈부르크가 말한 “실마리 찾기”의 방법을¹²⁾ 사용하여 다시 표현한다면 신을 찾는 ‘실마리’를 통해 그 뒤에 숨겨진 나의 모습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신을 찾는 질문 뒤에 숨겨 있는 나를 발견하기 위해 내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보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 정말 있을까?

- 나의 신앙의 길

나의 신앙생활의 시작을 기술하기 전에 짧막하게 나의 집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외할아버지께서는 경상북도 한 조그만 시골에서 스님으로 계셨으며, 큰할아버지께서는 영주 부석사의 주지로, 강원도 영월 보석사의 주지로 계셨다. 당숙께서 스님으로 계시며, 육촌 동생이 법복을 입고 있다. 이렇듯 나는 부모님 양쪽 집안이 모두 불교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가정에서 자라나게 되었다. 그러기에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가 절에서 불공을 드리고 칠성당, 삼신당에서 소원을 빌며 밤을 지새우던 일, 새벽을 알리는 법고 소리에 가사 장삼을 입은 스님을 따라 새벽 예불에 참가하던 일, 그리고 긴긴 겨울 밤 목탁을 두드리고 염주를 돌리며 불경을 외우던 일들이 나의 기억 속에 아직 남아있다. 저만치 사찰이 보이면 왠지 모르는 엄숙함에 사로잡혔던 나는 불공을 드릴 때 부처의 웃을 듯 말듯 가느다랗게 떠있는 눈매와 입술에서 그 분의 신비로움을 느끼곤 하였다. 몇 십리 산길을 걸어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중생들이 세상의 괴로움에서 구제되기를 빌며 사후 극락과 정토(淨土)에서 태어나기를 염(念)하던 시주승들의 합장에서 나는 중고(衆苦)와 번뇌의 미(迷)를 해탈하여 열반(涅槃)에 이르고 불과(佛菓)를 얻은 생불(生佛)을 보는 듯하였다.

이러한 어린 시절을 보낸 나는 부모님 곁을 떠나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그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과 만나게 되었다. 고향 들판의 아물아물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가 그림던 4월 어

8) 까를로 진즈부르크, 『치즈와 구더기. 16세기 한 방앗간 주인의 우주관』. 김정하·유제분 공역(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1).

9) 내털리 제이먼 데이비스, 『마르탱 게르의 귀향』. 양희영 역(서울: 지식의 풍경, 2000).

10) 클리포드 기어츠, 『문화의 해석』. 문옥표 역(서울: 까치, 1998).

11) Lawrence Stone, “The Revival of Narrative: Reflections on a New Old History”, *Past and Present* 85(November, 1979), 3-24쪽.

12) 진즈부르크가 1979년에 제시한 새로운 역사연구 방법론인 『실마리 찾기: 한 추론적 패러다임의 뿌리』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들을 참고하라. 까를로 진즈부르크, “정후돌. 실마리 찾기의 뿌리”, 『미시사란 무엇인가』, 138-206쪽; 광차섭, “까를로 진즈부르크와 미시사의 도전”, 『미시사란 무엇인가』, 294-296쪽.

느 날, 어두운 새벽 공기를 타고 들려오는 교회의 새벽 종소리가 문득 정겹게 느껴졌다. 순간 책에서 눈을 돌려 교회의 모습을 상상하며 불쑥 한 질문을 던졌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 정말 있을까?’

제법 종교적 생활의 범주 속에서 성장했다고 할 수 있는 나에게 있어서 이 기독교의 신에 대한 질문은 전혀 새로운 의미의 질문이었다. 산신령이라든가 옥황상제 그리고 염라대왕처럼 전설과 옛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신외에는 인간으로서 니르바나에 이르는 길을 걸었다는 부처에 비해 인간이 아닌 신에 대한 표상이 나에게겐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공부에만 전념해야 했던 한 어린 유학생의 시간 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없었다.

그러던 1976년 9월 4일, 나는 친구의 전도를 받아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되었다. 물론 위에서 던졌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나름대로 찾아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 날이 월요일이었는데 그때부터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 가서 기도하였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당신이 정말 계시다면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는 말을 기억하며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 또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을 만날 수 있는 길은 교회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신앙의 규범들을 철저히 지키는 데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도 전도사님의 가르침을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는 사이 교회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을 만날 수 있는 한 가능성만이 아닌, 고교시절 내 사고와 삶의 방향을 결정지어 주는 종교적 권위가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나의 신앙생활은 운동주 시인을 만나면서 더욱 깊어졌다. 가정적 환경으로 평소에 시에 대해 많이 듣던 나는 책꽂이에 꽂혀 있던 운동주 씨의 시들을 읽으며 외우며 가까이 하였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고자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으며 참회록을 쓰는 시인의 모습은 내 가슴 속 깊이 새겨졌다. 그리고 이 시인과 함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신을 찾아 나선 나의 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와 삼수를 거치며, 빛바랜 가로등 사이로 던져지는 냉소와 비웃음에 찌든 초라한 길로 접어들었다. 신에 대한 질문에 사로잡혀 있는 사이 나는 나를 잊어 버렸으며, 또한 교회와 가정 사이에서 고향 잃은 나그네가 되고 말았다. 당시 이러한 상황 속에 있던 나에게 있어 신을 찾는 길은 평탄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견디기 힘든 삶의 고통 속에서

“내 하나님이어 내 하나님이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 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 하시나이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뒤통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절규하는 시편 22편의 말씀으로 눈물 삼키며, 잡힐 듯 말듯 어렴풋이 느껴지는 신에 대한 소망을 부여잡고 내딛은 구도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포로 중에 있는 유대

인들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를 가지고 나를 찾아 오셨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 11-13)

밖으로부터 던져지던 냉소와 안에서 솟아나는 열등감으로 몹시 지쳐있던 어린 내 가슴에 이 예레미야를 통해 들리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당시 그 누구도 줄 수 없었던 위로의 말씀이었으며, 동시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을 만날 수 있는 한 길을 가르쳐 주는 소망의 말씀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나에게 닥치는 하루하루의 어려움을 쉽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극복할 수 있었으며, 신을 찾는 나의 길을 계속 걸을 수 있었다.

기독교의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길이 무엇보다 성서에 있음을 보다 깊이 깨달은 나는 성서를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삶에 대해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고백을 하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논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 3, 17-19)

어깨에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짐으로 인해 종로 뒷거리 이름 없는 밥집을 찾기도 숨이 헐떡거리던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분은 당신께 나아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셨다. 하나님, 그 분은 곤고한 가운데서 그 분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구원이 되시는 분이셨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신의 존재를 물었던 나에게 오히려 견딜 수 없는 삶의 고통과 외로움을 주시어 당신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해 주셨다.

그러나 신앙의 삶은 쉽지 않았다. 외부에서 오는 고통과 고난은 나름대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내적으로 일어나는 질문과 회의는 나를 헤어날 수 없는 의문의 수렁으로 사정없이 몰아쳤다. 특히 죄를 지었을 경우, 그것을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문제로 무척 고민하던 1980년 6월 어느 날, 나는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춘천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 모(母) 교회 춘천 동부교회에 들어서자마자 멀리 보이는 한 자매의 모습에 사로잡히는 느낌을 받았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뒤로하고 교회 본당으로 들어갔다. 한동안 기도를 하고 일어서서 뒤로 도는 순간 흠칫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본당 맨 끝에 소봇이 앉아 있는 한 여인의 모습 때문이었다. 그는 다름 아닌 교회를 들어설 때 본 그 자매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성에게 무척 수줍음을 가지고 있던 나는 무슨 배짱에서인지 그 자매에게 다가갈 말을 걸었다. 계속되는 이야기 속에서 나는 생전 처음 대하는 그 자매에게 나의 깊은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다. 바로 죄에 관한 문제였다. 그러자 그 자매는 죄의 문제를 바로 이 자리에서 해결 받고 싶지 않느냐고 물어왔다. 당혹한 나는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 자매는 나를 예배당 중간쯤 되는 자리로 데려가 앉게 한 후 나에게 성경을 읽게 하였다. 그 자매의 요청에 따르는 나의 행동은 처음에 매우 어색하게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나에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자매는 나에게 성경 말씀을 여러 곳 읽게 하였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 창고의 문이 서서히 열릴 때 빛이 조금씩 조금씩 어두운 창고로 들어가는 것처럼, 밝은 빛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조금씩 들어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치 아니하리라는 히브리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대하자 내 마음의 문이 모두 열려지고 온통 밝은 빛으로 가득함을 체험하게 되었다. 여기서 나는 한 자매를 통해 심판을 넘어 사랑으로 용서하시기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 이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남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고

증거하는 요한일서 4장 9-10절 말씀의 의미를 비로써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인간들의 삶과는 무관한 저 세상의 신이 아니라 중생들의 질고를 스스로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인간들과 함께 하시는 신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함을 알게 된 나는 그 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이 종교적 경험과 함께 나는 한 신비적 체험을 하게 되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던 바로 그 순간, 나는 무릎을 꿇고 나의 순종하지 않았음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 나는 내 입에서 뱉어진 기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무엇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잠시 묵상에 잠겼던 나는 번득 내 머리를 스치는 한 장면을 바라보게 되었다.

고삼 시절 본고사를 앞두고 서울에서 춘천으로 내려오던 중 잠깐 한 기도원에 들렸을 때의 일이다. 입구에서 등록을 한 뒤 기도원으로 들어가는데 처음 만난 한 중년의 어른께서 “학생 신학교가야 되겠구먼!”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신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나의 가정환경 속에서 바로 신학교를 간다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 시절부터 꿈꾸어 오던 것을 이루고 싶은 욕망이 마음 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바로 신학교를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없었었다. 여하튼 나는 그분의 말에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고자 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공부하고자 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바로 매우 무게 있는 목소리로 “아니야. 학생은 신학교 바로 가야 되겠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시험을 바로 앞둔 학생에게 좀 지나친 말씀이다 싶어 짜증나는 목소리로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자 “학생 몇학년인가?”하고 물으셨다. “3학년입니다.” “그럼 올해는 시험을 보게. 그러나 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신학교 바로 가라는데 있는 줄 알고 순종하게”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었다.

이 말씀이 그 동안 나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을 늘 피해왔었다. 더욱이 내 삶의 방향을 가르치는 그 아저씨의 말씀을 도무지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름도 모르는 한 자매와의 만남의 결과로 나의 입에서 나온 이 불순종의 질책은 그때까지의 나의 신앙의 삶에 또 다른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을 찾아 나선 나의 길, 그것은 이제 나의 존재와 관계가 없는 이름 없는 신을 찾는 길이 아니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분은 나의 실존과 구체적 연관을 가지기를 원하며, 나의 삶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신이었다. 그러기에 그 분을 찾는 나의 길은 ‘그분이 누구인가?’만을 묻던 질문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물으며 나를 찾는 길로 접어들었다. 다시 말해 ‘나사렛 예수의 사건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라는 질문이 이제까지 나를 지배해왔던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대체하게 되었다.

위로의 하나님,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학교를 바로 가기로 마음을 결정하고 그 다음 해 대한예수교 장로회신학대학교에 입학하였다. 집에서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 좋지 않았다. 입학금은 고사하고 집에 들어가는 것이 바늘방석에 앉는 고통이었다. 그러나 죄 사함의 확신을 체험하던 그 날, 나는 이 길이 내가 걸어야 할 길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다.

등록마감을 이틀 앞둔 어느 날, 영월 장로교회 반주자 누님이 내 입학금과 기숙사비를 학교로 부쳤으니 내일 학교에 가서 등록을 하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올해 내가 떨어진 것은 내 입학금으로 준비한 것으로 너의 입학금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신 것 같다. 나는 내년에 갈 테니 먼저 가서 공부해라.” 한편으로는 몹시 당황했지만 진지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누님의 모습 속에서 나는 이것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장신대의 입학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게 되었다.

신학교 입학과 더불어 그 동안 진심 반, 호기심 반에서 시작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을 찾는 나의 길은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다. 질문을 하던 입지에서 오히려 수많은 종교적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 수도해야 하는 신학생이 된 것이다. 나는 신학 공부를 통해 나의 종교적 삶의 중심에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을 보다 분명하게 그릴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벽찬 기대 속에서 시작한 신학 공부를 한 학기로 뒤로하고 군에 입대해야 했다.

군복무 기간은 다른 어느 때보다 신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런 기간이다. 그런데 나의 군 생활은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신을 찾는 나의 길에 또 한 번의 비약을 가져다 준 매우 의미 있는 기간이었다.

논산 훈련소를 거쳐 대구에 있는 방공학교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고 있던 어느 날 동생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편지를 읽고 내려가던 중 한 대목에 이르러 내 두 눈의 눈망울에 눈물이 어려 또박또박 적혀 있는 편지를 계속 읽을 수가 없었다. 전우들이 볼 새라 머리를 벽 쪽으로 돌리고 말뚱처럼 흐르는 붉은 눈물을 소리 없이 흘렸다.

“형! 기뻐해 줘.
지난주에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내가
형이 다니던 교회에 나갔어.”

종교적인 변신과 대학의 문제로 가정에서 문제아로 낙인찍히어, 명절을 맞아 집을 찾을 때마다 만남의 기쁨 대신 오히려 아무도 없는 들판을 눈물로 적셔야 했던 나에게, 동생이 전해 준 이 소식은 그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둔 설움이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승화되는 실로 복된 소식이었다.

대처승의 딸로 부처의 길을 걸으려 애쓰신 어머니! 아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부모가 그를 위해 불공을 드리면 그에게 해가 이를지 모른다는 말에 절에서 나의 이름을 제거할 때 이제는 아들을 정말로 잃었구나하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던 어머니! 그러한 당신께서 교회를 나가시게 되었다니!

가족의 회심과 더불어 군 복무 기간은 나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특별히 밤과 새벽에 혼자 있을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을 통해 나는 그때까지 그저 막연하게 생각했던 신

학과 믿음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나의 갈 길에 대해 보다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삶의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을 하고 싶었던 고등학교 시절의 꿈을 신학교공부와 연결시키며 깊이 있는 공부를 위해 유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제대 후 복학하기까지 남은 기간 동안 등록금을 벌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였다. 옷장사도 해 보고 외판원으로 일해 보는 등 열심히 일하였다. 그러나 분명히 시간과 정력을 투자했지만 도대체 돈을 모을 수가 없었다. 몸무게가 10킬로나 빠지는 것을 감수하며 시간과 정력을 투자했지만 등록금은 고사하고 하루하루 소비되는 생활비 벌기도 힘들었다. 결국 등록 마감 일자를 며칠 앞두고 집으로 내려갔다. 사정 이야기를 어머니께 말씀 드렸더니 십 만원을 마련해 주셨다. 당시 장신대에는 신용조합이 있어 십 만원을 저금하면 삼십 만원을 융자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삼십 만원으로 모자라는 나머지 금액을 한 달 안으로 완전히 낸다는 조건으로 가등록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 십 만원을 가지고 학교로 올라 왔다. 그런데 이 무슨 기구한 운명이란 말인가! 이 소중한 십 만원을 누가 슬쩍하다니. 귀가 막히고 아찔 하는 순간이었다. ‘웬 선비가 내 돈을 가져갔는고? 그냥 돈도 아닌, 융자를 내어 그나마 가등록이라도 해야 하는 마지막 보루의 십 만원을 그 누가 실레했단 말인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암담한 현실을 등에 지고 무거운 발걸음을 항상 마음이 우울하고 괴로울 때 찾아가던 춘천의 모교회로 돌렸다. 그때 사정 이야기를 들은 교교 시절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친구 중 몇몇이 마침 그 학기 장학금을 받게 되어 자신들의 등록금으로 준비했던 것이 남아 있다고 가지고 가서 등록을 하라고 타고 왔던 경춘선 열차에 다시금 내 몸을 신는 것이 아닌가! 정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처음 입학금도 그렇고 복학시의 등록금도 그렇고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등록금을 벌려고 그렇게 애썼건만 왜 나는 끝끝내 남의 도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지만 등록마감을 코앞에 둔 나에게 있어 이러한 질문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사치에 불과했다. 친구들의 사랑에 감사하며 등록을 하고 학교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내가 찾아 나섰던 기독교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나의 신학교 생활은 매우 활기에 찬 생활이었다. 나는 그때까지 겪었던 몇몇 신앙의 경험을 통하여,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분명한 흔적을 통해 삶에 대해 매우 낙천적이며 긍정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신학교를 다니는 전 기간 동안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던 나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다. 때론 일주일을 백 원짜리 식빵으로 견디어야 할 때도 있었다. 단돈 백 원만 있으면 라면을 사서 배를 채울 수 있을 텐데 하고 단돈 백 원 없는 것을 서러워해야 할 때도 있었다. 식사 때가 되어 무의식중에 식당에 내려가 줄을 서 있다가 식권이 없는 것을 알고 슬며시 나와 아차산 약수로 배를 채웠던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기숙사비가 없어 마지막 공부벌레의 발걸음 소리가 희미해짐과 동시에 도서관 한 구석에 침낭을 깔고 광나루의 꿈길을 걸었던 적 또한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나 생존을 위해, 무엇인가를 먹기 위해 벌였던 처절한 투쟁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이 배고픔 때문에 이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었으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기쁨과 감사 속에서 계속할 수 있었다. 가난, 그것은 고향에서 흘러오는 한강 물을 한 아름 가슴으로 안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기도탑에 올라 무릎 꿇는 경건의 삶을 쉬지 않게 하는 내 신앙생활의 가시였다. 가난, 그것은 내가 찾아 나선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찾아오시는 길이었다.

그러던 어느 학기 나는 거의 매일 종로에서, 또는 을지로에서, 또는 서울역에서 마지막 전철을 타고 학교로 돌아오던 때가 있었다. 당시 나는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가를 바로 이해하는 데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비밀이 담겨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공관 복음서를 통해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에 깊이 침몰해 있을 때였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나하고 만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5절에 기록된 바, 소외된 자와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의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구원이 되는 하나님임을 깨달았던 때였다. 또한 본회퍼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라는 말과 함께 “타자를

위한 삶”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말에 깊은 감명을 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를 고민하고 있던 때였다. 바로 이러한 깨달음과 도전 속에서 나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예수에 대해 회의를 품게 되었으며,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던 때였다.

그러던 어느 6월 밤, 나는 서울역에서 남산을 오르는 기슭 골목들을 둔탁한 군화소리를 피해 온갖 힘을 다해 뛰고 달렸다. 목덜미를 잡으려는 우악스런 손을 가까스로 피한 나는 알지 못하는 또 한 동료와 함께 보이는 교회 탑을 향해 죽을힘을 다해 뛰었다. 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한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담을 뛰어 넘었다. 잠겨 있는 예배당 문 옆으로 조그마한 집 한 채가 어두움을 뚫고 시야에 들어왔다. 사찰 집사님의 집이며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는 정황을 순간적으로 포착할 수 있었다. 발소리를 죽이고 그곳에 다가간 뒤 문을 두드렸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하여 떡 세 덩이를 청하던 어떤 사람에 대한 예수의 비유를 연상케 하는 간절한 상태였다. 다행히 불이 켜지며 사찰 집사님께서 나오셨다. 거절당할 것이라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로 하고 문을 두드렸는데 의외로 그분은 우리를 들어오라고 한 뒤, 씻을 수 있도록 수건과 비누를 주었다. 씻고 나오는 우리에게 마실 음료 수도 제공하였다. 당황해 하는 우리를 향해 천천히 마시고 나가면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내일 새벽예배 준비 때문에 빨리 취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11시 30분경이었다.

교회 문을 나서자 약간의 매운 맛만 아직 남아 있을 뿐 주위는 조용했다. 그때까지 말 한 마디 없던 피난 동료가 고요한 골목길의 정적을 깼다: “이런 교회도 있군요.” 서울역 전철역에서 헤어져 학교로 돌아오면서 나는 그 친구의 묵직한 여덟 글자 말을 되새기며, 그 말이 담고 있는 참된 내용을 헤아려 보았다.

이기적 개인 구원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웃을 경히 여기는 교회.
구원의 방주를 높이 쌓아
죄악된 세상과 구별하는
자칭 성스러운 교회.
교리와 전통에 사로잡혀
세상을 섬기러 오신
예수의 가르침과 삶을
잊어버린 교회.

이런 교회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친구의 눈에는 사회와 민중의 아편이요, 비이성적 인간들의 자기도취적 모임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교회에서 말하는 신은 그에게 있어서 죽은 신이요, 인간 세계와 관계를 가질 가치가 없는 신이었다. 그 친구의 독백은 교회가 자기 언어와 자기 논리 속으로의 침잠을 통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신을 잊어버린, 자신의 신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판이었으며, 행동하는 교회에 대한, 열려있는 교회에 대한 한 가닥 가느다란 호소였다. 이후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내 신앙생활의 중심에서 상당히 사라지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내가 그리고 당신의 몸 된 교회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으며, 실천해야 하는가?’에 나의 관심이 가게 되었다.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나는 독일로 유학의 길을 떠났다. 한편으로는 신학을, 특히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심도 깊게 연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의 지성인들에게 기독교의 진리와 가치관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좀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두 번째의 관심은 나의 유학 초반기를 다시금 ‘예수는 누구냐?’는 질문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그러나 신학서적을 읽으면 읽을수록 교회의 전통과 교리에 깔려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는 가없는 예수를 발견하게 되었다. 나에게 고이 간직되어 있던 성서에 나타난 예수의 신비는 교회의 세속적 관심과 물결에 휩싸여 영문 밖으로 쫓겨 나간 값없는 골동품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신은 죽었다고 외친 니체의 말을 되씹으며 박물관 모퉁이에 외로이 걸려 있는 신을 찾아 지금까지 걸어온 내

신앙의 길을 못내 괴로워하기도 하였다. 예수 자신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교리와 전통으로 높은 울타리를 치고 빗장을 잠근 교회, 평강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이름으로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며, 생명이 되는 당신의 진리의 가르침을 성소의 휘장 속에 가둔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며 본회퍼처럼 적들 한 가운데로, 마을 한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들이 너무도 그립곤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래도 그루터기로 남아 의를 좇으며 야훼를 찾는 예수의 무리가, 사변적 신학의 유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 의미를 자신들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리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마르틴 루터를 만나게 되었다. 논문을 쓰기 위해 대면한 루터는 나에게 신앙과 신학에 대해 끊임없이 되돌아보게 하였다. 특히 신학은 실천적인 것이지 사변적이 아니라는 말과 신학자란 단지 독서나 사색이나 사변을 통해 얻게 되는 지적인 지식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삶의 장안에서 만나게 되는 실천적인 신앙의 경험을 통해 되는 것이라는 말은 신학을 하는 나의 자세를 늘 반성하게 하였으며 경건과 학문을 건강하게 조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교회 개혁의 기치를 들고 추진해 나가는데 수도사라는, 설교자요 목회 상담자(고해신부)라는, 대학교수라는 그의 직업이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직업의 장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삶의 자세를 배우게 되었다. 다시 말해 공부를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의식 속에 최선을 다해 하는 삶의 자세를 견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나는 공부하는 즐거움에 빠지게 되었으며 먼지 냄새나는 고서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외형적인 삶은 쉽지는 않았다. 신학교를 다닐 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전 유학경비를 스스로 벌면서 충당해야 했다. 이른 새벽에 집집마다 세계의 소식들을 전해주는 일을 하였다. 방학 중엔 공장 직공이 되기도 해야 했다. 이런 일들로 몸은 피곤했으며 공부의 맥이 끊기기도 했지만 공부의 즐거움이 식지는 않았다. 새벽운동을 하고 아침 일찍 도서관에 앉아 공부를 시작할 때는 몸 구석구석에서 흘러나오는 행복의 기운이 나를 감싸곤 하였다.

그러던 1996년 7월에 나는 경제적인 중압감에 결국 가족과 헤어져야 했다. 아내도 밤낮으로 일 자리를 찾아 일을 하였지만 유학경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데는 한계를 느꼈다. 그래서 가족을 한 국으로 보내고 혼자 남아 논문의 마무리를 하고자 했다. 가족을 비행기로 떠나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무력감을 느꼈다.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활을 책임지지 못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때 나는 성경을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감정을 추스를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얼마 읽지 않아 나는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의 근본을 이룬 하박국 말씀에 버금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 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 25, 31-46).

하나님, 그 분은 이제 더 이상 나의 고통과 고난을 덜어주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며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던 어린 시절의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분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발돋움을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셨다. 도움의 손길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생활에서 이제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좇아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고, 찾아가고, 위로하는 신앙의 삶으로 결단케 하시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 그분은 또한 당신의 존재에 대해, 아니 당신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 깊은 회의 속에 빠져 있던 나에게 신학적 사변이 아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향해 선한 일이 행해지는 곳에 당신의 사랑이 싹틈을 가르쳐 주셨다. 이후 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분은 교회의 울타리 속에 갇혀 있는 교리와 전통의 불모가 아닌 이웃 사랑이 파괴되는 곳, 바로 그곳에 오늘도 인간의 질고를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요, 이웃 사랑이 살아있는 곳, 그곳에 가느다란 미소로 함께 하시는 부활의 신임을 고백하게 되었다.

이제 내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교회를 나간 지 만 30년이 되었다. 이 30년의 신앙생활 동안 나는 성경으로부터 그리고 신학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 듣고 경험한 한국과 독일에서의 기독교의 모습은 오히려 나로 하여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의 존재를, 그분의 인격을 회의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죽었다!”고 외치지 않고 성서를 묵상하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신 그분의 기운을 알기 때문이다.

잡힐 듯 말듯 아련하게 내 신앙의 길을 감싸고 있는 이 기운을 느끼며 오늘도 나는 30년 전에 내딛은 신을 찾는 순례의 길을 계속 걷고 있다. 때론 내가 그분을 찾아 나선 것인지, 아니면 그분이 나를 찾아 나선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 또 때론 그분께서 당신의 존재의 양상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에게 보여 주신 것인지, 아니면 그분을 찾는 나의 시야와 질문이 바뀐 것인지 모호할 때가 많다. 찾았다고 느낄 때 그분은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알았다고 느낄 때 그분은 다시 무(無)로 나에게 다가온다.

돌아보건 데 그분을 찾는 길, 그것은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는 간난의 길’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곳, 그분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곳을 향해 오늘도 나는 발을 내딛는다. 이 여정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